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5. Vol. 18, No. 2, 1-21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른 상황에서의 접촉 유형의 비교: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접촉태도,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김 수 정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내적 상태와 신체 접촉 상황에서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6개월 된 영아를 가진 어머니 299명이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신체접촉의 17가지 상황을 크게 2가지 범주(생리적 상황과 사회·정서적 상황)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불안, 양육 스트레스, 접촉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아개념에 따라 생리적 상황과 사회·정서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접촉 유형의 빈도의 차이를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적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부드럽고 애정적인 접촉 유형을 생리적인 양육 상황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접촉 유형은 내적 상태에 따라 달랐다. 즉 안정된 내적 상태를 가진 어머니들은 불안정한 내적 상태를 가진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정적 정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들은 두 가지 양육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접촉을 사용하고 있음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신체접촉 상황, 접촉 유형, 우울, 양육스트레스, 불안, 접촉에 대한 느낌, 자아개념

신체접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 가장 사회적 감각이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맛을 보는 것들은 각각의 감각기능 하나만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형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 동안 상호작용 하는 사람의 의도나 감정이 신체접촉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Hertenstein, 2002).

본 연구는 2002년~2005년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기초학문육성과제(KRF-2002-074-HM 1006)의 일부이다.

교신저자 :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가령, 어머니의 화난 상태는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된다. 아울러 어머니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 상태가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기도 한다(Stepakoff, Beebe, & Jaffe, 2000). 특히 어린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기의 신체접촉의 특징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영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시사해 왔다(Greenough, 1990; Stack, 2001).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신체접촉이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사전달의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Hertenstein, 2002; Marphurs, Raag, Field, Pickens, Pel áez-Nogueras, 1996; Peláez-Nogueras, Field, Hossain, & Pickens, 1996a; Pel áez-Nogueras, Gewirtz, Field, & Cigales, 1996b). 그러나 신체접촉의 중요성 중, 특히 신체접촉의 의사 전달적 기능은 무시되어 왔으며, 영아 상호작용 문헌에서 비교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Field, 2002). 의사전달의 통로로서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약 10 여 년 전부터이다 (Muir, 2002).

Hertenstein(2002)에 따르면 어머니와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지각, 사고, 감정을 교환하는데, 이런 지각, 사고, 감정은 정서적 그리고 비 정서적 또는 정보적 의사전달을 촉진시킨다. 즉 어머니의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키거나,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생후 3개월 된 어린 영아의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Peláez-Nogueras et al., 1996a; Stack & Muir, 1990, 1992; Stack & Arnold, 1998). 가령, 신체접촉을 받은 1.5개월-3.5개월의 영아는 신체접촉을 받지 않은 영아보다 더 많이 웃고 소리를 냈으며, 덜 울었다.

후속 연구(Peláez-Nogueras, Field, Gewirtz, Cigales, Gonzalez, Sanchez, & Richardson, 1997)에서는 2개월~4.5개월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접촉 유형의 효과를 비교했다. 쓰다듬기를 받은 영아들은 간질이기와 찌르기를 받은 영아보다 소리 내면서 더 잘 웃거나, 덜 울었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특정 유형이 정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었으며, 이런 결과를 통해 신체접촉이 영아의 내적 상태를 조절할 수 있음(Montagu, 1986)이 시사된다.

신체접촉이 정서와 다른 정보의 의사전달에 대한 강력한 감각 체계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의사전달에서 신체접촉 역할에 대한 문헌은 매우 부족하다. 연구가 부족했던 일차적인 이유는 방법론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촉각적 형태는 매우 복잡하므로 행위에서 다양하고 강도, 속도, 갑작스러움, 온도, 위치, 빈도, 지속, 그리고 접촉되는 영역에서 다양하다. 즉 상호작용으로부터 신체접촉의 특별한 형태에 대한 정확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촉각적 자극을 측정하기 위해 코딩시스템이 고안되었지만(Stack, LePage, Hains, & Muir, 2001; Stepakoff et al., 2000; Weiss, 1992), 특별히 표준화된 것이 없다.

신체접촉의 형태나 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신체접촉을 연구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만,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신체접촉이 차지하는 영역은 광범위하다. 따라서 최근 들어 양육현장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동안, 미국의 영아들은 시간의 33~61% 동안 신체접촉을 받았으며 (Stack et al., 1990), Kalahari 사막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Kung족을 포함한 문화권의 영아들은 상호작용의 75% 동안 신체접촉을 받는다 (Konner, 1976). 자이레에 거주하는 Efe부족의 어머니들도 Kung족과 비슷한 양의 신체접촉을 자녀들에게 한다 (Tronick, 1995).

한국의 어머니들도 Efe족들처럼 (Tronick, Morelli, & Winn, 1987) 자녀를 항상 옆에 두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들은 가사 일을 하거나 또는 자녀를 재울 때 등에 업곤 한다. 흔히 어머니들은 유아기까지 한방에서 자녀를 재우며, 특히 품안에 안고 재운다(정대련, 2003). 이처럼 신체접촉은 어머니의 돌보는 행위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양육현장에서 부지불식간에 신체접촉을 통해 순간순간 자신의 내적 심리 상태를 영아에게 전달하면서 (Hertenstein, 2002), 영아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Weiss, Wilson, Seed, & Paul, 2001).

무엇보다도 신체접촉이 초기 영아기 발달의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조절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Brazelton, 1990; Montagu, 1986). 가령 촉감각적 자극은 영아의 몸무게를 증가시킨다(Helder, Cats, & Debast, 1989; Scafidi, Field, Schanberg, Bauer, Tucci, Roberts, Morrow, & Kuhn, 1990; Watt, 1990). 즉 신체접촉은 영아의 경계 상태를 유지시켜, 따분함을 감소시키는 등의 행동적 상태, 즉 각성상태를 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신체접촉은 신생아를 달래기 위한 효과적 자극이 되기도 한다(Birns, Blank, & Bridger, 1966; Korner & Thoman, 1972). Brazelton(1984)에 의하면 신체접촉은 영아를 자극하여 의사전달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높은 위험 상태에 있는 영아의 신체적 또는 지각적 발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접촉의 기능은 돌보는 사람의 신체접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돌보는 이에 대한 영아 반응에서 나온 증거 등을 근거하여 추론되었다. 신체접촉의 질적인 측면, 즉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언제 어떻게 더 사용될 수 있는 가는 설명되지 않았다.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조사한 연구(Weinberg & Tronick, 1994)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영아와 상호작용 동안 아기를 쓰다듬거나, 안거나 율동적인 신체접촉을 주로 했다. 이에 비해 찌르기와 꼬집기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찌르기나 꼬집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사용되어진다(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Cohn등의 연구(Cohn, Matias, Tronick, Connell, Lyons-Ruth, 1986; Field et al., 1990; Malphurs et al., 1996)에 의하면 우울한 엄마는 돌발적이고, 통제적이고 과다 자극적인 방식으로 또는 움츠린 수동적이고 자극이 부족한 방식으로 영아와 상호작용 한다. 또한 우울한 엄마들은 더욱 부정적인 방식으로(가령, 거칠게 잡아끌거나, 간질이거나, 찌르는 등의 신체접촉), 자주 영아를 접촉한다 (Fergus, Schmidt, & Pickens, 1998; Lyons-Ruth, Zoll, Connell, & Grunebaum, 1986; Malphurs et al., 1996).

그러나 김수정과 곽금주 연구(2004; 곽금주, 김수정, 2004)에 의하면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은 잡아끌거나, 찌르는 등의 거친 신

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물론 한국 어머니들의 우울 정도가 선행 연구(Fergus et al., 1998; Lyons-Ruth et al., 1986; Malphurs et al., 1996)에서의 우울 정도와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 어머니들은 우울 성향이 높아도 특별히 부정적인 접촉 유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울성향이 높은 한국 어머니의 접촉 유형과 외국 어머니들의(Cohn et al., 1986; Field et al., 1990; Malphurs et al., 1996)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울 정도에서의 차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모집한 어머니 중에서 우울 성향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접촉 행동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가진 어머니들은 극히 드물 수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상황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같은 유형이라도 상황마다 다르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상황과 연관된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간질이기나 찌르기는 일반적으로 어린 영아에게 불쾌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Peláez-Nogueras, et al., 1997), 장난치는 상황이나 놀이 상황에서는 정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다양한 특성은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맥락이나 엄마의 특징과 연관된다 (Hertenstein, 2002).

한편 영아의 발달 정도도 신체접촉에 영향을 준다. Herra, Reissland 와 Shepherd(2003)는 6개월 영아의 우울한 어머니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을, 10개월 영아의 우울한 어머니와 비교했다. 결과에 의하면 10개월 영아의 우울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자주 접촉하거나, 또는 들어올리기를 사용했다. 아마도 나이든 자녀를 둔 우울한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들은 영아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억제시키고 지시하기 위해서 또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신체 접촉을 사용하는 것 같다 (Fergus et al., 1998; Field et al., 1990). 이처럼 자녀의 발달 수준이 우울한 어머니의 신체접촉 유형이나 빈도에 영향을 준다.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과는 다른 차원의 심리적 특성이지만 김수정 등(2004)의 연구에서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애정적인 접촉 유형을 더 자주 했다. 즉 살포시 안기, 마사지/지압 등의 정적(static)이고 애정적인 접촉을 사용하였고, 말 태우기, 안고 흔들기, 들어올렸다 내리기와 흔들기 등의 동적(active)이고 애정적인 접촉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

기존 연구들 (Michelsson, Christensson, Rothganger, & Winberg, 1996; Pel áez - Nogueras et al., 1996a; Stack & Muir, 1990)에 의하면 부드럽고 애정적인 신체 접촉은 영아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distress)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유형의 신체 접촉은 음성, 또는 시각적 의사전달보다 우월한 잠재력을 갖는다(Grossman, Grossman, Gottfried, Suess, & Unzner, 1985; Korner, 1990).

어머니가 아동기 때 받은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도 자녀를 신체접촉 하는데 영향을 준다 (George & Solomon, 1996; Steele, Steele & Fonagy, 1996). 어려서 받은 신체접촉에 대해 느끼는 어머니의 내적 상태는 내적 작동모델의 한 영역을 구성하여 자녀에게 하는

신체접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

김수정 등(2004)의 연구에서도 신체접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은 정적(static)이고 애정적인 접촉 유형과 동적(active)이고 애정적인 접촉을 자주 했다. 어머니의 다양한 촉각적 자극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유익할 수 있으므로(Kempermann, Kuhn, & Gage, 1997; Larsson, 1994), 어머니의 신체접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양육현장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체접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머니의 내적 요인 중의 하나는 자아개념이다. 어머니의 자아개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 의식으로, 자녀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잘 수용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한송자, 1990). 따라서 어머니의 높은 자아개념은 자녀와의 애정적 접촉을 이루게 해 주며, 이런 애정적 접촉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뿐 아니라 자녀의 인지,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hler, 1968).

그러나, 김수정과 곽금주의 연구(2004)에 의하면 높은 자아개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애정적인 접촉 유형과 아울러 움켜잡기나 꼭 쥐기와 같은 동적(active)이고 거친 접촉 유형도 많이 했다. 이런 거친 접촉은 영아에게 부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상황을 고려한 접촉 유형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급되었듯이, 어머니들의 신체접촉은 맥락적 요소,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gender)과 같은 발달적 변화 뿐 아니라 개인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Hertenstein, 2002). 그러므로 어머니의 내적 심리 상태에 따른 접촉 상황과 유형 간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접촉 유형이 차이가 있는지, 특히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양육현장에서 어머니들의 보살핌을 신체 접촉 상황과 유형에 따라 접근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신체접촉의 빈도나 유형에 영향을 준다(Fergus, Pickens, & Schmidt, 1998; Stepakoff et al., 2000). 그러나 상황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 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접촉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로, 모의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불안과 행동 간의 관계성을 알아 본 연구(Fergus et al., 1998)에 의하면, 우울증의 증세를 더 많이 보고한 엄마가 자녀를 가장 많이 접촉했다. 우울이 어머니의 행동과 가장 커다란 관련성을 보였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김수정, 곽금주, 2004). 그러나 불안은 우울과는 다른 차원의 심리적 성향 중의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안 성향이 높고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상황에 따라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 볼 것이다.

셋째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을 이루었지만(김수정, 곽금주,

2004), 양육스트레스 또한 우울 및 불안과는 또 다른 심리적 차원이다.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도 자녀에게 애정 어린 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상황과 접촉 유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에 대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신체접촉 상황과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넷째로, 어머니가 아동기 때 받은 신체접촉과 관련된 개인적 느낌이나 현재 신체접촉에 대한 태도도 자녀를 신체접촉 하는데 영향을 준다(김수정, 곽금주, 2004; George & Solomon, 1996; Weiss et al., 2001).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도 접촉되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접촉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접촉 상황과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의 자아개념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여러 돌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개념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상황과 접촉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전국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6개월 된 영아를 가진 총 450명의 엄마들로서(서울·경기: 260명, 영남: 130명, 호남: 60명)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모집했거나 또는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선별하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선행연구(김수정, 곽금주, 2004)에서 모집한 피험자와 동일하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지와 어머니의 내적 상태를 알아보는 질문지는 김수정과 곽금주(2004)의 연구에서 실시된 것과 동일하다(김수정, 곽금주, 2004 참조). 각각의 어머니들에게 신체접촉 질문지와 내적 상태를 알아보는 5개의 질문지가 반복 측정되었다.

간단히 살펴보면,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척도를 사용했으며, 이 척도는 구미향(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BDI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으로 나타났다.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BAI(Beck Anxiety Inventory) 척도를 사용했으며, 이 척도는 서수균(1996)의 논문에서 사용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BAI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측정은 박응임(1995)의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다. 신체접촉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묻는 질문지는 신체접촉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김수정과 곽금주(2004)에서 사용된 것이다.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6이다. 자아개념을 알아보는 척도는 조결자의 논문(1993)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다.

실시절차 및 검사자 훈련

2003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훈련받은 검사자가 연구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자아개념을 묻는 질문지는 즉시 수거해 오고, 신체접촉을 묻는 질문지는 2주 후에 우편으로 받았다.

자료처리 방법

신체접촉 질문지는 450개 중, 299 개만이 회수되었다. 회수된 신체 접촉 질문지에 근거하여, 299명의 어머니들에게 실시된 내적 변인을 측정하는 5개의 질문지가 분석되었다.

내적 상태에 대한 분류는 각 변인들의 총점에서 상위 30%내에 속한 집단은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30% 내에 속한 집단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신체 접촉에 대한 느낌도 총점에서 상위 30% 안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접촉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으로, 하위 30% 안에 속한 엄마들은 부정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자아개념에서도 상위집단은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집단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상황에 따른 접촉유형을 모두 다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먼저 고려한 것이, 어머니들에게 개방식으로 물어서 나온 17가지의 접촉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시키고자 하였다. 5명의 발달심리학자들이 합의 하에 각각의 17가지 상황을 크게 생리학적 양육 상황과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 속하는 상황은 장난치는 상황, 노는 상황, TV를 보는 상황, 책을 읽어 주는 상황, 노래 부르는 상황, 달래는 상황, 야단을 치거나 주의를 주는 상황, 사랑/애정을 표현하는 상황, 칭찬하는 상황 등이며, 생리적 양육 상황에 속하는 상황은 수유 상황, 목욕/기저귀를 갈아주는 상황, 잠을 재우는 상황, 잠에서 깬 상황, 아픈 상황 등이다.

분류된 2가지 상황에서 사용된 접촉 유형의 빈도의 수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상황에서 39가지의 접촉 유형의 사용 여부만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접촉 유형을 독립적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2가지 상황에서 어머니의 5가지 내적 변인에 따른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Chi-Square Test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접촉 유형에서 유의미한 Chi 값만이 제시되었다. 표 2~표 6에서는 본 연구자가 분석과는 상관없이 임으로 표 가운데 굵은 선을 그어 접촉 유형을 동적인(active)것과 정적인(static) 것으로 구분하였다.

결 과

<표 1>에서 보면 머리 쓰다듬기, 살포시 안기,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 몸 긁기 등의 접촉 유형은 생리적인 양육 상황에서 엄마들의 사용 빈도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업기는 생리적 상황과 사회·정서적 상황에서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접촉 유형은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접촉 유형에 따른 상황과 우울에서의 차이:

우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생리적 양육 상황과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각각

표 1. 접촉 상황에서 사용된 접촉 유형의 빈도

접촉 유형	생리적	사회·정서적
뽀뽀하기	44	172
볼 쓰다듬기	69	159
머리 쓰다듬기	130	108
들어올렸다 내리기	8	244
살짝 꼬집기	7	141
간질이기	4	245
꼭 안기	54	177
살포시 안기	127	93
흔들기	60	158
찌르기	1	129
움켜잡기	10	85
무릎 흔들기	7	232
마사지	168	59
엉덩이 두드리기	143	104
물기	18	165
안고 돌기	0	191
발에 올리고 걷기	0	72
찰싹 때리기	19	116
잡아끌기	8	58
업기	106	111
등배만지기	197	57
얼굴코비비기	17	199
이마비비기	10	168
목마 태우기	0	143
손발 만지기	77	94
배 위에 앉히기	21	225
볼 얼굴 대고 비비기	21	177
귀 만지기	116	54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10	142
코 만지기	21	117
다리 올려 비행기 태우기	6	193
물구나무 태우기	0	72
몸에 입대고 바람불기	48	193
말 태우기	0	60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1	74
안고 흔들기	54	152
안고 뒹굴기	24	137
몸 긁기	67	51
꼭 쥐기	28	72

의 접촉 유형별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우울 성향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79명으로, 하위 점수에서 26.6% 범위 내에 있으며,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85명으로, 상위 점수에서 28.6% 범위 내에 속한 엄마들이다.

각 접촉 유형 별로 상황과 우울 집단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살포시 안기,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 등의 활동성이 비교적 없는 정적인 접촉 유형은 생리적인 양육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활동적인 동적 접촉 유형들은 주로 사회·정서적인 양육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접촉 유형에 따른 상황과 불안에서의 차이:

불안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생리적 양육 상황과 심리·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각각의 접촉 유형별 빈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불안 성향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엄마들은 81명으로, 총 점수에서 상위 27.3% 범위 내에 있으며, 불안 성향이 높은 집단의 엄마들은 84명으로, 총 점수에서 하위 28.3% 범위 내에 속한 엄마들이다.

각 접촉 유형 별로 상황과 불안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업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가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더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뽀뽀하기, 볼 쓰다듬기, 꼭 안기 등의 접촉 유형과 그 이외의 활동적인 신체접촉 유형의 대부분이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접촉 유형에 따른 상황과 양육스트레스에서의 차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낮은 정도에

표 2. 접촉상황과 우울정도에 따른 접촉 유형 빈도

접촉 유형	접촉상황/우울				x^2
	생리적 양육 상황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		
	저	고	저	고	
뽀뽀하기	12	12	54	51	184.92***
볼 쓰다듬기	18	16	46	56	65.21***
꼭 안기	19	16	45	52	61.14***
살포시 안기	39	35	21	31	13.49***
마사지	47	47	17	18	70.06***
엉덩이 두드리기	50	40	22	33	19.54***
등배 만지기	58	58	12	19	166.39***
얼굴 코 비비기	4	3	56	59	823.92***
이마 비비기	2	1	50	49	1650.11***
배 위에 앉히기	5	8	66	66	581.15***
볼 얼굴대고 비비기	7	4	50	57	389.91***
귀 만지기	33	34	20	17	17.30***
코 만지기	6	4	36	34	234.90***
들어올렸다 내리기	2	2	68	72	2179.69***
살짝 꼬집기	2	1	34	40	690.16***
간질이기	1	1	65	75	3881.20***
흔들기	20	17	38	45	32.33***
찌르기	0	1	32	39	1809.79***
움켜잡기	5	2	22	27	113.82***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1	6	64	61	1080.34***
물기	6	4	44	54	316.03***
찰싹 때리기	5	4	25	39	92.61***
잡아끌기	3	3	16	20	60.07***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2	3	46	44	805.67***
다리에 올려 비행기태우기	2	0	52	58	2561.96***
몸에 입대고 바람불기	16	10	51	61	143.13***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0	1	22	23	904.24***
안고 흔들기	19	14	42	41	64.75***
안고 뒹굴기	8	6	39	40	177.54***
꼭 쥐기	9	7	18	24	18.93***

**p<. 01, ***p< .001

따라 생리적 양육 상황과 심리·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각각의 접촉 유형별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81명으로, 총 점수에서 상위 27.3% 범위 내에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80명으로, 총 점수에서 하위 26.9% 범위에 속한 엄마들이다. 각 접촉 유형 별로 상황과 양육 스트레스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정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마시지, 엉덩이 두드리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 몸 긁기 등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생리적 상황에서 더 많았다. 뽀뽀하기, 볼 쓰다듬기, 꼭 안기 등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주로 더 많았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여부와 상관

표 3. 접촉 상황과 불안 정도에 따른 접촉유형 빈도

접촉 유형	접촉상황/불안				x^2
	생리적 양육 상황		사회·정서적 양육 적 상황		
	저	고	저	고	
뽀뽀하기	15	15	47	49	88.21***
볼 쓰다듬기	21	15	39	53	40.35***
꼭 안기	14	14	49	52	109.24***
살포시 안기	37	29	21	34	7.37**
마사지	49	41	16	20	45.06***
엉덩이 두드리기	49	31	21	38	13.35***
업기	36	28	21	34	6.60*
등배 만지기	54	55	16	20	110.50***
얼굴 코 비비기	3	4	58	54	923.20***
이마 비비기	3	3	53	41	1007.51***
배 위에 앉히기	4	9	68	60	646.97***
볼 얼굴대고 비비기	8	4	49	46	379.17***
귀 만지기	29	34	21	17	16.34***
코 만지기	7	6	39	33	210.85***
들어올렸다 내리기	2	2	69	68	2326.53***
살짝 꼬집기	1	2	37	43	802.15***
간질이기	2	0	65	73	3989.61***
흔들기	15	18	45	48	65.46***
움켜잡기	3	1	23	30	222.37***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2	1	61	68	2312.19***
물기	7	4	44	52	292.80***
찰싹 때리기	6	4	24	38	75.93***
잡아끌기	2	5	15	22	32.93***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2	4	50	38	876.80***
다리에 올려 비행기태우기	1	2	52	59	1629.86***
몸에 입대고 바람불기	15	11	53	60	154.76***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0	1	21	19	881.60***
안고 흔들기	19	10	42	44	88.14***
안고 뒹굴기	1	11	44	34	265.58***
꼭 쥐기	5	6	19	27	34.32***

**p<. 01, ***p< .001

없이 귀 만지기는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였다. 가령, 생리적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비슷한 빈도의 사용을 보였다.

접촉 유형에 따른 상황과 신체접촉 태도에서의 차이:

신체접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생리적 양육 상황과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각각의 접촉 유형별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접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89명으로, 총 점수에서 상위 30% 범위 내에 있으며, 부정적인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82명으로, 총 점수에서 하위 27.6% 범위 내에 속해 있다.

표 4. 접촉상황과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접촉유형 빈도

접촉 유형	접촉상황/양육스트레스				x^2
	생리적 양육 상황		사회적·정서적 양육 상황		
	저	고	저	고	
뽀뽀하기	15	8	49	51	168.88***
볼 쓰다듬기	20	18	46	48	56.34***
꼭 안기	17	14	49	51	99.91***
마사지	51	40	15	18	47.07***
엉덩이 두드리기	47	41	22	28	8.15**
등배만지기	55	56	17	17	117.69***
얼굴 코 비비기	3	6	58	54	687.91***
이마 비비기	3	2	50	49	968.68***
손발 만지기	22	22	31	27	6.84**
배 위에 앉히기	5	6	61	60	609.19***
볼 얼굴대고 비비기	7	4	50	53	404.31***
귀 만지기	34	34	16	18	34.52***
코 만지기	7	4	36	39	199.53***
들어올렸다 내리기	2	1	70	66	3318.59**
살짝 꼬집기	3	2	40	34	660.91**
간질이기	2	1	69	69	3127.83***
흔들기	23	17	41	40	41.89***
찌르기	1	0	33	37	2058.32***
움켜잡기	4	0	25	25	317.95***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3	2	64	63	1598.68***
물기	6	4	46	47	379.79***
찰싹 때리기	8	2	23	39	78.99***
잡아끌기	1	3	18	17	136.09***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1	4	47	37	906.13***
다리에 올려 비행기태우기	1	0	50	59	4612.72***
몸에 입대고 바람불기	14	13	53	55	144.93***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0	1	21	19	881.60***
안고 흔들기	16	10	49	43	152.19***
안고 뒹굴기	6	9	39	37	152.24***
몸 긁기	22	21	15	13	4.35*
꼭 쥐기	9	9	24	18	39.94***

**p<. 01, ***p< .001

각 접촉 유형 별로 상황과 신체접촉 태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정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마사지,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의 접촉 유형은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사용 빈도가 더 컸다. 이에 비해 뽀뽀하기, 꼭 안기, 얼굴 코 비비기, 이마 비비기, 코 만지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살짝 꼬집기, 간질이기, 찌르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물기, 다리에 올려 비행기태우기, 몸에 입대고 바람불기 등은 사회·정서적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접촉 유형에 따른 상황과 자아 개념에서의 차이:

자아개념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생리적 양육 상황과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각

표 5. 접촉상황과 접촉 태도 정도에 따른 접촉유형 빈도

접촉 유형	접촉상황/신체접촉에 대한 태도				x^2
	생리적 양육 상황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뽀뽀하기	12	14	45	57	213.33***
볼 쓰다듬기	16	28	42	41	41.66***
꼭 안기	9	17	53	55	195.75***
마사지	41	62	17	10	75.96***
등배만지기	54	62	13	15	129.87***
얼굴 코 비비기	2	6	58	57	778.38***
이마 비비기	2	7	47	51	583.42***
배위에 앉히기	6	7	64	65	589.68***
볼 얼굴대고 비비기	3	11	46	53	414.42***
귀 만지기	29	40	16	19	8.23**
코 만지기	4	7	36	37	223.56***
들어올렸다 내리기	3	3	64	75	1950.60***
살짝 꼬집기	40	4	80	36	9.46**
간질이기	1	1	69	73	5407.22***
흔들기	15	18	44	45	73.78***
찌르기	1	0	36	35	68.11***
움켜잡기	2	3	31	19	102.07***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2	2	59	75	2793.88***
물기	7	4	46	46	349.64***
찰싹 때리기	25	7	6	36	195.94***
잡아끌기	2	1	19	15	114.89***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4	2	33	47	802.90***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0	2	53	61	4013.65***
몸에 입대고 바람불기	9	17	52	65	274.71***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1	0	17	26	1624.91***
안고 흔들기	17	17	39	46	73.75***
안고 뒹굴기	4	11	29	45	318.91***
꼭 쥐기	9	7	18	26	59.17***

**p<. 01, ***p< .001

각의 접촉 유형별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83명으로, 총 점수에서 상위 27.9%범위 내에 있으며, 부정적이고 자기 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81명으로, 하위 27.3% 범위 내에 속해 있다.

각 접촉 유형 별로 상황과 자아개념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정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살포시 안기,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의 접촉 유형만이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뽀뽀하기, 꼭 안기, 얼굴·코 비비기, 이마 비비기, 볼·얼굴대고 비비기, 코 만지기, 들어 올렸다 내리기, 간질이기, 찌르기, 움켜잡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물기,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 소리내기 등은 주로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더 사용되었다.

표 6. 접촉상황과 자아개념 정도에 따른 접촉유형 빈도

접촉 유형	접촉상황/자아개념				x^2
	생리적 상황		사회·정서적 상황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뽀뽀하기	10	17	46	48	85.16***
볼 쓰다듬기	14	20	60	43	81.28***
꼭 안기	11	17	51	50	112.46***
살포시 안기	31	39	26	24	13.28***
마사지	42	50	20	15	79.64***
엉덩이 두드리기	36	41	33	28	4.77*
등배만지기	55	54	15	19	113.74***
얼굴로 비비기	5	3	48	62	475.41***
이마 비비기	3	3	40	55	422.56***
손발 비비기	19	27	31	23	4.07*
배 위에 앉히기	9	7	60	63	382.86***
볼 얼굴대고 비비기	2	7	51	53	484.10***
귀 만지기	25	34	13	19	45.17***
코 만지기	1	5	31	36	247.85***
들어올렸다 내리기	2	2	67	71	81.28***
살짝 꼬집기	1	2	45	32	1122.03***
간질이기	0	0	72	69	72.95***
흔들기	23	17	41	40	41.89***
움켜잡기	0	4	23	28	4.77*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3	2	61	70	1344.25***
물기	2	6	45	45	433.51***
찰싹 때리기	3	4	37	26	414.06***
잡아끌기	1	2	17	16	173.09***
끌어안고 뛰어다니기	5	2	32	51	220.43***
다리에 올려 비행기태우기	0	2	32	54	2313.23***
몸에 입대고 바람불기	11	13	57	56	200.06***
안고 흔들기	14	15	35	53	32.84***
안고 뒹굴기	3	7	37	46	195.42***
꼭쥐기	3	8	21	22	43.61***

**p<. 01, ***p<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들이 6개월 된 영아에게 사용하는 신체접촉 유형이 상황과 어머니의 내적 심리 상태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첫째로, 어머니의 우울 정도와 접촉 상황에서 각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김수정, 곽금주, 2004)에서 어머니들에게 개방식 질문을 통해 얻은, 자녀를 돌볼 때 사용하는 39가지의 접촉 유형 중, 30개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두 가지 상황(생리적 양육 상황 대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과 우울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2 참조>.

활동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적인(static) 접촉 유형인 살포시 안기,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가 사회·

정서적 상황보다는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들은 생리적 양육 상황, 즉 자녀에게 수유 할 때, 목욕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 줄 때, 잠을 재우거나 잠에서 깰 때, 그리고 자녀가 아플 때에는 주로 부드럽게 접촉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 같다. 그리고 우울 성향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는 비슷한 빈도로 위에서 언급된 접촉 유형을 사용했다.

이에 비해 움직임이 강렬한 동적인 접촉 유형들의 대부분은 사회·정서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적인 접촉 유형 중, 뽀뽀하기, 볼 쓰다듬기, 꼭 안기, 코 비비기, 코 만지기, 배 위에 앉히기 등이 사회·정서적 상황에서 사용 빈도가 더 많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어머니들이 뽀뽀하기, 볼 쓰다듬기, 꼭 안아 주기 등의 접촉 유형을 하면서, 안정된 애착 형성에 유익할 수 있는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아기를 어루만져주고 꼭 껴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안정 애착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 연구(Leyendecker, Lamb, Fracasso, & Scholmerich, 1997; Network 1997; O'Connor, Siegman, & Kasari, 1992)에서 언급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강렬한 활동이 있는 접촉 유형인, 살짝 꼬집기, 간질이기, 흔들기, 움켜잡기, 물기, 찰싹 때리기, 잡아끌기 등은 우울 성향이 낮은 어머니들보다는 높은 어머니들이 조금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울한 어머니들은 영아를 거칠게 잡아끌거나, 찌르는 등의 거친 신체접촉을 자주 한다는 선행연구(Fergus et al., 1998; Malphurs et al., 1996)와 일치되는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어머니의 불안 정도와 접촉 상황에서 각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30개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불안 정도와 상황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정적인 접촉 유형인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업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가 사회·정서적 상황보다는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의 일부는 마사지나 지압, 그리고 엉덩이 두드리기는 목욕/기저귀를 갈아주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선행 연구(김수정, 곽금주, 2004, 표 1 참조)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즉 본 연구에서 목욕/기저귀를 갈아주는 상황이 생리적 양육 상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정적인 접촉 유형 중, 뽀뽀하기, 꼭 안아주기, 비비기, 코 만지기 등은 불안 성향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생리적 양육을 위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적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자녀를 보살피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활동적이고 강렬한 움직임이 있는 접촉 유형의 대부분은 생리적 상황보다는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활동적인 접촉 유형 중, 살짝 꼬집기, 간질이기, 움켜잡기, 물기, 찰싹 때리기, 잡아끌기는 불안 성향이 낮은 어머니보다 높은 어머니들이 조금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어머니들의 내적 상태가 자녀의 생리적 양육 상황보다는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일부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셋째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와 접촉 상황에서 각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31개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상황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적인 접촉 유형인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 그리고 동적(active) 접촉 유형인 몸 긁기가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더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동적 접촉 유형과 일부의 정적인 접촉 유형들은 생리적 양육 상황보다는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가 높든지 낮든지에 상관없이 사회·정서적 상황과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자녀에게 사용하는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는 비슷했다.

넷째로, 어머니의 신체접촉에 대한 태도와 접촉 상황에서 각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5>에서 보듯이, 28개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적인 접촉 유형인, 마사지,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가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보다는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런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는 신체접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활동적인 접촉 유형의 대부분과 정적인 접촉 유형의 일부분이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접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어머니들이 부정적인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부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접촉 유형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꼬집기, 움켜잡기, 잡아끌기 등의 거친 접촉 유형은 접촉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이 더 자주 사용했다. 이런 결과는 신체접촉에 대해 어머니들이 느끼는 개인적 느낌이 자녀에게 하는 접촉 유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Weiss et al., 2000)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정도와 접촉 상황에서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았다. <표 6>에서 보듯이, 29개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자아존중감 정도와 접촉 상황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살포시 안기, 마사지, 엉덩이 두드리기, 등·배 만지기, 귀 만지기의 접촉 유형은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보다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사용 빈도의 수가 더 많았다. 등·배 만지기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들보다는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조금 더 나타났다.

아마도 자기 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목욕/기저귀를 갈아주는 어수선한 상황이나, 재우는 상황에서 등이나 배를 만져주거나 마사지 또는 지압을 해 줌으로써 영아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생리적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접촉 유형의 사용 빈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활동적인 접촉 유형의 대부분이 생리적 양육 상황보다는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접촉 유형 별로 자아 존중감 정도에 따라 사용 빈도에서 미약한 차이는 나타났다. 가령,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형성에서 일어나는 끌어안고 뛰어 다니기, 다리에 올려 비행기태우기, 안고 흔들기, 안고 뒹굴기 등은 어머니

의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 사용 빈도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살짝 꼬집기, 간질이기, 찰싹 때리기 등의 거친 접촉 유형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들에게서 사용 빈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정적 정서를 야기시키는 접촉 유형을 더 사용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어머니들은 생리적 상황, 즉 수유를 하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또는 잠을 재우거나 잠에서 깨었을 때, 그리고 아플 때, 자녀에게 마사지, 등·배 만져 주기, 엉덩이 두드리기 귀를 만져 주기 등의 부드럽고 온화한 접촉 유형을 해 줌으로써 자녀의 심신의 안정을 북돋아 주는 것 같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들이 특정 소수의 접촉 유형을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 심리 상태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드럽고 애정적인 접촉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뿐 아니라 자녀의 인지,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Mahler, 1968)에 근거한다면, 이런 애정적인 접촉 유형이 양육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활동적이고 때로는 거친 접촉 유형들과 일부 애정적인 접촉 유형들은 사회·정서적인 양육 상황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즉 애정이나 칭찬을 하는 상황이나, 야단을 치거나 주의를 주는 상황, 장난을 치거나 노는 상황, 달래는 상황,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 주는 상황, 그리고 노래를 불러 주는 상황 등에서는 활동적인 접촉 유형의 대부분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의 생리적 양육에서 어머니들이 부드럽고 온화한 접촉 유형을 사용하는 반면,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는 몇몇 부드러운 접촉 유형과 다양한 유형의 거칠거나 활동적인 접촉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이 제안되었다.

양육현장에서 어머니의 신체접촉은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는 돌보는 행위 중의 한 영역으로, 영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접촉 유형은 다양하며, 유형마다의 다른 메시지가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신체 접촉은 돌보는 행위의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런 의사전달적인 기능의 일부를 예시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에서 한 단계 씩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여전히 많은 미흡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직 알아보지 못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신체접촉 유형이 사용된 여부만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상황과 유형을 독립적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가지 상황을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서, 각 접촉 유형에서 상황과 내적 심리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만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내적 상태에서의 접촉 유형의 차이는 알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신체접촉 유형과 상황에 대한 질문지를 점수화시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9가지 접촉 유형과 17가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범주화시켜 어머니 내적 변인과 함께 분석할

경우, 내적 상태에 따른 상황과 유형 간 관계를 좀더 분명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영아의 발달에 따라 접촉되는 상황과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6개월 영아에 대한 접촉 유형과 상황에서의 차이를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근거하여 알아보았기 때문에, 양육에서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접촉 유형과 상황 간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따라서 종단적으로 발달에 따라, 접촉 상황과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동시에 밝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때, 영아기 어머니들의 접촉 유형과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영아기 어머니들의 접촉 유형을 알아보는 질문지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아기 접촉 유형과 상황에 대한 탐색은 이후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지표로써 양육현장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금주, 김수정 (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7(1), 1-18.

김수정, 곽금주 (2004). 6개월 영아에 대한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 어머니 우울, 양육스트레스, 불안, 접촉에 대한 느낌, 그리고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7(3), 1-23.

구미향 (1999).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과 모성행동 특성 분석. 성균관대 박사학위청구논문.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대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 안내자의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 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대련 (2003). 다문화의 전통적 양육방식 비교 연구. 생활과학 연구(동덕여대), 8, 131-143.

조결자 (1993). 저 체중 출생아와 정상아의 모아상호작용 변화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청구논문.

한송자 (1990).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Birns, B., Blank, M., & Bridger, W. H. (1966).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soothing techniques on human neonates. *Psychosomatic Medicine*, 28, 316-322.

Brazelton, T. B. (1984). Introduction. In C. C. Brown (Ed.), The many facets of touch (pp. xv-xviii). Skillman, NJ: Johnson & Johnson Baby Products Co. *Pediatric Round Table Series,* 10.

Brazelton, T. B. (1990). Touch as a touch stone: Summary of the round table. In K. E. Barnard & T. B. Brazelton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Clinical Infant Reports, No. 4, pp. 561-566). Madison, WI: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Cohn, J. F., Matias, R., Tronick, E. Z., Connell, D., Lyons-Ruth, K. (1986). Face-to-face interactions of depressed mothers and their infants. In: Tronick, E. Z., & Fields, T. (Eds.),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Disturbance.* Jossey-Bass, San Francisco. pp. 31-45.

Fergus, E. L., Pickens, J., & Schmidt, J. (1998). Touch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405.

Fergus, E. L., Schmidt, J., & Pickens, J. (1998). *Touch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Po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Infant Studies, Atlanta, GA.

Field, T. M. (2002). Infants' Need for Touch. *Human Development, 45* , 100-103.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 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ersu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 26,* 7-14.

George, C., & Solomon, J. (1996). Representational models of relationships: links between caregiving and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198-216.

Greenou gh, W. T. (1990). Brain storage of information from cutaneous and other modalities in development and adulthood. In K. E. Barnard & T. B. Brazelton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Full revised and expanded proceedings of Johnson & Johnson Pediatric Round Table X (pp. 97-126).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Grossman, K., Grossman, K. E., Gottfried, S.,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50,* 233-256.

Helder, P. J. M., Cats, B. P., & Debast, S. (1989). Effect of a tactile stimulation/range-finding programme on the development of VLBW-neonates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15,* 369-380.

Herrera, E., Reissland, N., & Shepherd, J. (2003). Maternal touch and maternal child-directed speec h: effects of depressed mood in the postnatal peri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1.

Hertenstein, M. J. (2002). Touch: Its Communicative Functions in Infancy. *Human Development, 45,* 70-94.

Kempermann G., Kuhn H., & Gage F. (1997). More hippocampal neurons in adult mice living in an enriched environment. *Nature, 386,* 493-495.

Konner, M. J. (1976).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among the Kung. In R. B. Lee & I. DeVore (Eds.), *Kalahari hunter-gatherers: Studies of the Kung San and their neighbors* (pp. 218-2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orner A. (1990). The many faces of touch. In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Barnard K, Brazelton TB (Ed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adison, CT; 269-297.

Korner, A. F., & Thoman, E. B. (1972). The relative efficacy of contact andvestibular-proprioceptive stimulation in soothing neonates. *Child Development, 43*, 443-453.

Larsson K. (1994). The psychobiology of parenting in mamma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5*, 97-143.

Leyendecker, B., Lamb, M. E., Fracasso, M. P., & Scholmerich, A. (1997). Playful interaction and the antecedents of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of Central American and Euroamerican mothers and infants. *Merrill-Palmer Quarterly, 43*, 24-47.

Lyons-Ruth, K., Zoll, D., Connell, D., & Grunebaum, H. (1986). The depressed mother and her 1-year-old infant: environment, interaction, attachment and infant development. In: Tronick, E., Field, T. (Eds.),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Disturbance.* Jossey-Bass, San Francisco, pp. 61-82.

Mahler, M. S. (1968). *Infantile Psych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78.

Malphur s, J. E., Raag, T., Field, T., Pickens, J., & Pel áez-Nogueras, M., (1996). Touch by intrusive

and withdrawn mothers with depressive symptoms.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5 (2),* 111-115.

Michelsson K, Christensson K, Rothganger H, & Winberg J., (1996). Crying in separated and non-separated newborns: Sound spectrographic analysis. *Acta Paediatrics 85,* 471-475.

Montagu, A. (1986). *Touching: The human significance of the skin* (3rd ed.), New York: Harper & Row.

Muir, D. W. (2002). Adult Communications with Infants through Touch: The Forgotten Sense. *Human Development, 45,* 95-99.

Network, N. E. C. C. R.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O'Conner, M. J., Siegman, M. D., & Kasari, C. (1992). Attachment behavior of infants exposed prenatally to alcohol: mediating effects of infant affec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4*, 243-256.

Peláez-Nogueras, M., Field, T. M., Hossain, Z., & Pickens, J. (1996a). Depressed mothers' touching increases infants' positive affect and attention in still-face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1780-1792.

Peláez-Nogueras, M., Field, T., Gewirtz, J. L., Cigales, M., Gonzalez, A., Sanchez, A., & Richardson, S.C. (1997). The effects of systematic stroking versus tickling and poking on infan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69-178.

Peláez-Nogueras, M, Gewirtz, J. L., Field, T., & Cigales, M. (1996b). Infants' preference for touch stimulation in face-to-face interac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99-213.

Scafidi, F. A., Field, T. M., Schanberg, S. M., Bauer, C. R., Tucci, K., Roberts, J., Morrow, C., & Kuhn, C. M. (1990). Massage stimulates growth in preterm infants: A replica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3,* 167-188.

Stack, D. M. (2001). The salience of touch and physical contact during infancy: Unraveling some of the mysteries of the somaesthetic sense. In A. Fogel & G. Brem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London: Black well.

Stack, D. M., & Arnold, S. L. (1998). Changes in mothers' touch and hand gestures influence infant behavior during face-to-face interchang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451-468.

Stack, D. M., LePage, D. L., Hains, S., & Muir, D. W. (2001). *Differential touch as a function of instruction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Application of the Caregiver-Infant Touch Scale (CITS). Manuscript under revision.

Stack, D. M., & Muir, D. W. (1990). Tactile stimulation as a component of social interchange: New interpretations for the still-face effec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31-145.

Stack, D. M., & Muir, D. W. (1992). Adult tactile stimulation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modulates 5-month-olds' affect and attention. *Child Development, 63*, 1509-1525.

Steele, H., Steele, M., & Fonagy, P. (1996).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classifications of mother, fathers, and their infants. *Child Development, 67*, 541-555.

Stepakoff, S., Beebe, B., & Jaffe, J. (2000). *Mother-infant tactile communication at four months: Infant gender, maternal ethnicity, and maternal depression*.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Brighton, England.

Tronick, E. Z. (1995). Touch in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 M. Field (Eds.), *Touch in early development* (pp. 53-65). Mahwah, NJ: Erlbaum.

Tronick, E. Z., Morelli, G. A., & Winn, S. (1987) Multiple caretaking of Efe(Pygmy) infants. *American Anthropologist, 89*, 96-106.

Watt, J. (1990). Interaction, intervention, and development in small-for-gestational-age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3,* 273-286.

Weinberg, M. K., & Tronick, E. Z. (1994). Beyond the face: An empirical study of infant affective configurations of facial, vocal, gestural, and regulator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503-1515.

Weiss, S. J. (1992). Psychophysiologic and behavioral effects of tactile stimulation on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5*, 93-101.

Weiss, S. J., Wilson, O., Hertenstein, M.J., & Campos, R. (2000). The tactile context of a mother's caregiving: Implications for attachment of low birth weigh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91-111.

Weiss, S. J., Wilson, P., Seed, J., & Paul, S. M. (2001). Early tactile experience of low birth weight children: Links to later mental health and social adapt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0*, 93-115.

1차 원고 접수 : 2005. 1.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4. 15
최종게재결정 : 2005. 5. 12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5. Vol. 18, No. 2, 1-21

The relations among mothers' touch patterns and mothers' internal states, and touch situations in infants at 6 months: On the depression, anxiety, parenting stress,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Suchung Kim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thers' touch patterns in several caring situations depending on their internal states. Participants were 299 mothers of 6 months olds. The mothers were asked about type of touch and situations when they touched their babies. The touch situations were categorized into 2 groups(physiological situations vs social·emotional situations). The difference in touch and touch situations according to mothers' depression, anxiety, parenting stress, the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were analysed using Chi-Square Test separately. The results revealed that all mothers used soft and affectionate touch in the physiological caring situations regardless of their internal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in social·emotional caring situation, mothers' touch patter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internal states: mothers with more stable internal states were more likely to use the types of touch causing positive emotions than mothers with unstable internal states. The results of our study indicated that mothers use different touch patterns in the two caring situations depending on their internal states.

Keywords: touch situations, touch pattern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xiety, the feeling of touch, self-concept